

현대영화에 나타난 하나님 이미지 연구
-영화 <오두막>을 중심으로-

강진구(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2007년 첫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윌리엄 P. 영(William P. Young)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 <오두막>(The Shack)은 철저한 기독교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총 5천7백3십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2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제작비를 크기 넘어서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에 개봉하여 2017년 9월 20일 현재 공식통계상 75,657명이 관람하여 인기 있는 소설에 거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기독교영화로는 보기 드문 삼위일체 신앙을 영상으로 표현한 영화라는 점에서 혁신적 상상력을 전개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영화는 삼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 맥(샘 워싱턴)이 막내딸을 연쇄살인범에게 잃고 난 후 실의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중 ‘파파(Papa)’로부터 보내 온 한 통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편지 내용인 즉 딸이 살해된 흔적이 발견된 오두막으로의 초대장이었다. 영화는 맥이 오두막에서 삼위일체로써의 ‘파파’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 <오두막>이 이전의 기독교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간 형상을 통해 표현했다는 데 있다. 주인공 맥을 오두막으로 초대한 파파(옥타비아 스펜서)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뜻밖에도 중년의 흑인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파파는 맥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이웃에 살며 과자를 구워주던 친절한 아주머니로 영화 시작 부분에 등장하기도 한다.

성령 또한 파격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라유(Sarayu)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령은 미모를 갖춘 아시아의 젊은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일본의 배우 겸 가수 그리고 패션 모델로도 활동 중인 스미레 마츠바라(Sumire Matsubara)가 이 역할을 맡았다.

성자 예수 역할은 하나님이나 성령의 이미지에 비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출신의 배우인 아브라함 아비브 알루쉬(Avraham Aviv Alush)가 극중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수 일을 하는 청년으로 함께 묘사된다.

과거 어떤 영화에서도 등장한 일이 없던 삼위일체를 구체적인 캐릭터로 묘사한 일은 크게 두 부분에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나는 영화의 대사상으로는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스크린에 드러난 삼위는 각각의 다른 이미지로 등장하며, 주인공 맥이 위격을 개별적으로 만나 경험하는 모습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해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 강조하는 이단교설인 ‘삼신론’(tri-theism)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 위에 함께 계셨다는 영화 속 언급은 성부가 고통 받고 죽으셨다는 성부 수난설(patripassionism)에 가깝다. 그런데 성부수난설 또한 이단의 교설이다. 3세기에 로마에서 교사 또는 장로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를 양태론(modalism)으로 이해하고 가르쳤다.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듯이 자신을 하나의 모습에서 세 가지의 다른 모습(양태)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구체적인 세 명의 캐릭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한 일은 현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즉 <오두막>은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기독교 대중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격을 특정한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호학적인 분석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스크린에 표현된 이미지는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의미를 담아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영화 <오두막>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는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성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장벽화 ‘천지창조’에 묘사되어 있다. 그림 속 하나님은 단단한 체구에 흰 옷을 입고 은색의 수염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는 백인 장년 남성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하며 기쁨이 넘치고 힘과 권위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

영화 속 하나님의 이미지에 변화가 온 것은 <브루스 올마이티>(2003)가 첫 출발점이었다. 관록 있는 흑인배우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을 맡아서 화제를 일으켰고, 이어지는 속편 <에반 올마이티>(2007)에서도 모건 프리먼은 같은 배역을 맡았다. 보수적이며 인종편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할리우드에서 하나님이 흑인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오두막>에는 흑인 남성도 아닌 흑인 여성이 하나님 역할을 맡았다.

그렇다면 <오두막>에서는 왜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 대신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택했을까? 영화에서 하나님을 어떤 성 혹은 어떤 인종으로 묘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영화를 제작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와 관련되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흑인 여성으로 묘사한 일을 가지고 부정적 관점에서 보거나 무시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며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삼위의 이미지를 기호학적으로 읽을 경우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현대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모성애를 가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파파는 미국사회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중년의 흑인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이를 여러 명 낳고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까닭에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머니 같은 모습의 전형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그린 렘브란트는 그의 작품 <탕자의 귀향>에서 집에 돌아온 탕자를 안은 아버지의 손 가운데 오른손을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려서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둘째는 신비와 치유의 성령님이다. 성령은 미모의 동양인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비둘기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령을 묘사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인간의 형태로 묘사한 점은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양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열등하고 왜소하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비적이며 치유적 존재로 그려지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그것은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 감수성을 유지하며 서구의 문제에 대한 대안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의 반영일 수 있다.

셋째는 소탈한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다.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길거리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젊은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옛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나이든 느낌도 없다. 활

력이 넘치고 늘 옆에서 함께 활동하는 절친한 친구의 모습 그대로다. 영화 속 예수는 주인공 맥을 '자랑스런 친구'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이미지는 결국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교회가 갖추길 원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상처 입은 주인공 맥에게 투사하여 분노의 감정 뒤편에 숨겨져 있었던 용서의 신앙적 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원하지만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과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